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의 장식장 제작 수업에서 공동 작업을 수행 중인 학생들(왼쪽),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에서 다양한 목재 샘플을 보여주는 샬로타 엑홀름 교수(맨 위), 현대적인 디자인의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 외관(위).

Students collaborate in the cabinetmaking department of the school of Carl Malmsten Furniture Studies (left). Furniture professor Charlotta Ekholm shows off various wood samples on display at a student exhibition (top). The school is a department of Linköping University in Stockholm, Sweden (above).

## 목공 장인 양성소,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

# Crafting the Future

디자인계에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은 20세기의 고전으로 통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북동부 리딩외 섬에 자리한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는 남다른 교육 과정과 학생들 간 공동 작업 등을 통해 북유럽 디자인의 전통을 잇고 있다.

**On the lush island of Lidingö in Stockholm, Sweden's future furniture designers and cabinetmakers are learning their craft at Carl Malmsten Furniture Studies.**

“소파 같은 오래된 가구에 천을 씌워 새것처럼 만들어내는 가게를 여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에서 가구에 천이나 가죽을 씌우는 ‘업홀스터리’ 기법을 전공하는 에밀 세텔룬드의 말이다. 올가을 졸업을 앞둔 세텔룬드는 “여기서 3년간 공부하면서 가구 분야에도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북동부 리딩외 섬에 자리한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는 신제품 개발에서 디자이너와의 협업, 말춤 같은 독특한 재료의 활용법 등을 다각도로 가르친다. 이곳에서 세텔룬드는 창의력 고취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가구로 구현하는 법을 배웠다.

“I had always had this romantic picture of owning an upholstery shop and renovating old furniture,” says Emil Zetterlund, a senior in the furniture upholstery program at Carl Malmsten Furniture Studies. “But after three years of studying here, I quickly realized there was so much more.” Zetterlund has had the chance to learn product development, work with unique materials such as horsehair, and collaborate with students in the furniture design program. He explains that Malmsten’s has not only fostered his creativity, but helped him bring it to life.



석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지난 2000년, 린셰핑대학교의 일부로 병합되었다. 학부 전공은 장식장 제작, 가구 업홀스터리, 가구 보존, 가구 디자인의 4가지다.

칼 말름스텐의 정신은 오늘날 교수와 학생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설립 초기만 해도 목공 일을 배우는 공방에 불과했던 이곳이 이제는 가구 디자인 및 디자이너와 장인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가구 분야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다양한 수업과 함께 현장 실습도 병행해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다.

“우리 가구 학교가 특별한 까닭은 특정 재료나 기술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제작의 개략적인 그림만 보여주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1994년부터 이곳에서 학생을 가르쳐온 레오 요한손 교수의 말이다. 인테리어 건축가이자 목공예가인 그는 이케어나 증소 가구업체뿐만 아니라 스웨덴, 아이슬란드 정부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 가구를 제작해왔다.

낮은 의자를 재단장하는 작업에 한창인 가구 업홀스터리 전공 학생(왼쪽 페이지).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빛이 가득 들어오는 교내엔 학생들이 만든 가구가 가득하다(아래).  
A furniture upholstery student refurbishing an old chair (opposite). Furniture items designed and created by students are used to decorate the interior of the school (below).

**Leading Institution** Carl Malmsten specialized in wood furniture and focused on quality, creativity and design over functionalism. His style became the benchmark for the minimalist furniture Sweden is now world-famous for. He founded Carl Malmsten Furniture Studies in 1930, and the school eventually became an extension of Linköping University in 2000.

Malmsten took traditional woodworking techniques and gave them a contemporary twist. This vision remains a guiding principle of the school's curriculum. Students can choose from four specialized bachelor programs: cabinet-making, furniture upholstery, furniture conservation and furniture design. The school has progressed from its origins as a small handicraft workshop to a leading institution that focuses on design and cooperation between designers and craftspeople, like cabinetmakers and upholstery experts. Malmsten's was recently named Design School of the Year 2013 by a leading furniture industry association.

“What makes Malmsten's unique is that, unlike other schools that give broader overviews, we specialize and



세텔룬드와 마찬가지로 올해 졸업반인 요세피나 헤그는 장식장 제작이 전공이다. 세텔룬드와 헤그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의자는 아르데코 양식에서 영감을 얻어 말총으로 짠 직물과 황동, 가죽을 사용해 만들었다. 둘은 의자를 스톡홀름 가구 박람회 에서 선보였는데, 스톡홀름 가구 박람회는 매년 겨울 전 세계 90개국 3만5000여 명이 찾아오는 대규모 행사다.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에 지원하기 전 장식장 제작의 기초를 이미 배운 헤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보다 세련되게 연마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구 제작에 필요한 목공 기술과 함께 전반적인 가구 디자인 과정을 함께 배운 헤그는 그녀가 하는 작업에 보다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배웠다”고 말했다.

전통 가구 제작 기법과 지식에 혁신적인 현대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가는 것. 이 같은 정신은 학교의 설립자인 칼 말름스텐이 지켜내고자 한 가구 철학이었다.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가구 디자인을 대표하는 장인인 칼 말름스텐은 1930년에 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가구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품질, 창의성, 디자인도 강조했다. 말름스텐의 가구 스타일은 오늘날 스웨덴 가구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데 초

Together with Josefina Hägg, a senior in the cabinetmaking program, Zetterlund designed a signature art deco-inspired chair called *[sic]*, which makes use of horsehair fabric, brass and leather. *[sic]* was exhibited at the Stockholm Furniture Fair, which brings in roughly 35,000 visitors from more than 90 countries every winter.

Hägg, who studied the basic techniques of cabinetmaking before applying to Malmsten's to further her craft, wholeheartedly agrees with Zetterlund. Pushing to go beyond her carpentry skills, she decided to get more involved in the design process. “I realized I could be more innovative in my work and I have learned how to use different methods to be creative and to solve problems,” she says.

This spirit of combining traditional knowledge with innovative design would have made the school's guiding spirit, Carl Malmsten (1888-1972), very proud. Commonly referred to as Malmsten's, the school bears the name of its founder, the 20<sup>th</sup>-century Swedish furniture designer and craftsman who is known as the father of modern Swedish woodwork.

**전통 기술과 현대 디자인의 접목** 졸업생들은 자질이 뛰어나 가구 디자인 업계에서 졸업과 동시에 그 실력을 인정받는다.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율리아 니엘센은 스웨덴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인 맛스 테셀리우스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 교환연수생으로 다녀왔다.

“살아 있는 재료인 나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교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는 니엘센은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시험 대비의 일환으로 3개월 동안 개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기간이야말로 학생 개개인이 앞으로 디자인해갈 가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니엘센은 신제품을 구상하는 동시에 우메오와 블레킹에 지역과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전시도 준비하는 등 가구 디자이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는 4개 전공을 모두 합쳐 대략 60명의 정원을 유지한다. 학생들 간 일대일 협업이 긴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학교의 얼굴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강사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덕분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편하게 교수실로 찾아갈 수 있어요.” 재학생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요세피나 헤그의 말이다. 이곳 교수들은 학교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로 개방적이고 격의 없는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각각의 수업은 학생 4~6명이 테이블 하나에 둘러앉은 규모 정도입니다.” 레오 요한손 교수의 설명이다.

해마다 봄이면 각기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만든 가구를 교내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유럽 곳곳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전시한다. 또 교수들은 직물, 스칸디나비아 목재 등 각자가 익숙한 재료를 담당해 학생들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스웨덴 스몰란드에 위치한 스웨덴 가구 산업회는 2013년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를 ‘올해의 디자인 학교’로 선정하기도 했다.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는 짙은 색의 나무로 만든 견고한 정육면체 학교 건물부터 남다르다. 외관은 커다란 통유리를 이용해 건물 안이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 현대적이면서 시원한 느낌을 준다. 널찍한 통유리창 덕분에 건물 내부 역시 자연광이 훤히 들어오고 특별한 구분 없이 탁 트인 공간은 서로 다른 전공일지라도 학생들 간 공동 작업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처럼 학교 건물만 보아도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와 재학생들이 지켜내려는 이곳의 가치와 철학을 짐작할 수 있다. 얼핏 단순한 외양 속에 감춰진 혁신적인 디자인, 견고하고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랫동안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들 말이다. 이는 칼 말름스텐 가구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글 사진 톨라 아신마데 오세르스트림

build depth in specific materials and techniques,” says Leó Jóhannsson, who has been a professor at Malmsten’s since 1994. An interior architect and product designer specializing in wood products, he has designed for a mix of clients — from IKEA and smaller businesses to special commissions for both the Swedish and Icelandic governments.

“Malmsten’s focuses on wood, which is a live material that requires knowledge at the cellular level to fully understand its behaviors and restrictions,” says Malmsten’s furniture design alumna Julia Nielsen. “This gives a good basis for understanding material principles in the other materials.”

Graduating students immediately find themselves in demand in the furniture design industry in Sweden. Nielsen has interned with noted Swedish designer Mats Theselius and completed an exchange program in Reykjavík, Iceland. She particularly enjoyed the three-month period students are given to develop independent projects to prepare for exams. “This becomes the basis and foundation for one’s future design expression,” says Nielsen, who now works on a variety of projects throughout Sweden.

Malmsten’s accepts only a small number of students



소파 재단장 작업 중인 학생(위). 졸업반 학생들이 만든 의자. 말름스텐은 직물과 황동, 가죽으로 만들었다. 가구 제작에 필요한 각종 공구. 학교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왼쪽 페이지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student working on a sofa (above). (Counterclockwise from opposite) A chair made of horsehair fabric, brass and leather; scraping and finishing tools; students take a break on the grass outside the school.

each year — about 60 in total across all its programs. This makes it very intimate and perfect for one-on-one collaboration. “You don’t disappear here,” says Hägg, referring to the small number of students in each class — usually between four and six. “You are the face of the school. You get to know everyone very well and we’re close to the teachers so we can just go knock on their door if we need them.” The faculty has a tradition of being easily accessible for students.

Every spring, students collaborate to create interdisciplinary pieces that are exhibited at the school as well as at museums in Sweden and fairs throughout Europe. The faculty also curates student exhibitions that focus on materials like textiles, fabrics, as well as an array of Scandinavian wood.

The school building itself feels like a solid square block of dark wood with roof-high windows. Inside, there are airy spaces filled with natural light, open floor plans, with no enforced demarcations between departments. There is a subtlety to its simple yet innovative design that models the values of the school and its students. Solid, sustainable and timeless design is at the heart of everything they craft.

● Text and photographs by Lola Akinmade Åkerström

